

# 빨치산의 아들 권영길, 그의 아버지를 알아보자

자주평등통일0615

<https://youtu.be/uLPrbDpyK4s>

경남 산청군 단성면 출신인 부친 권우현은 36년 이웃마을 처녀 하영애와 고향에서 결혼한 직후 단신으로 일본에 건너갔고, 5년 뒤인 41년초 합류한 하영애와의 사이에서 권영길을 갖게 됐다.

권영길이 태어난 직후 야마구치현에서 도쿄로 옮겨 작업장 등에서 막노동 등을 하던 권우현은 일본이 항복한 45년 8월 15일 가족을 이끌고 부산행 배에 몸을 싣는다. 권영길은 일본에서의 유년기 시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귀국한 권우현은 고향에 정착한다. 그는 구장(區長)을 맡으면서 마을의 대소사를 두루 챙겨 신망이 높았다고 한다. 교육에 관심이 많아 야학을 여는 한편 마을 유지들을 설득해 입석초등학교를 세웠다. 권영길도 48년 이 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던 권우현은 6·25 발발 후 지리산으로 들어간다. 하영애는 "산사람들이 몰래 내려와 '함께 안가면 죽인다'고 해 남편이 고민이 많았다. 부산으로 도망간 적도 있었지만 결국 입산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53년 휴전이 된 뒤 지리산 일대에서는 국군의 대대적인 빨치산 소탕작전이 전개됐다. 결국 권우현은 54년 12월 허기를 채우기 위해 친척집에 들렀다가 국군에게 들켜 총에 맞아 숨을 거둔다. 이후 권영길의 어머니는 남편에 대해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권영길은 "아버지가 빨치산이었다는 것을 굳이 감추지 않겠다. 그의 못다 이룬 꿈을 소중히 간직할 것"이라고 했다.